



즉시 배포용: 2018 년 10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비상 사태 및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중교통에서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항만청 대중교통(Port Authority Public Transportation)에서 반려동물의 동반 탑승을 허용하도록 현행법을 확대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비상 사태 및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대중교통에서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용하는 법안(S.7112/A.4956)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 항만청 대중교통(Port Authority Public Transportation)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확대하고, 동물과 반려동물 주인의 필요성에 관련된 현재의 비상 운영 계획과 일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스러운 시기에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이 상식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가 상륙했던 기간 동안, 수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피를 거부했습니다. 대피를 거부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과 무방비 상태의 반려동물의 생명이 위협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긴급 구조 대원들도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Andrew Lanz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비상 사태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반려동물을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버스와 열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이 법안은 항만청(Port Authority)이 제공하는 모든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은 주민, 무방비 상태의 반려동물, 대피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긴급 구조 대원들의 삶이 불필요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은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운영하는 대중 교통 수단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대중 교통 수단으로 인간과 반려동물 등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